

문화광장



김준기 미술평론가

오키나와에서는 해마다 종전 기념일을 전후하여 '2019 마부니언프로젝트(MPP)'가 열린다. 20만명의 희생자를 낸 오키나와전쟁 최후의 격전지 마부니언덕이 주전시장이다. 40명에 달하는 제주와 한반도, 타이완 그리고 오키나와와 일본열도의 예술가들이 참가하는 '2019 MPP' (6월 10~28일)의 주제는 '평화의 공명(共鳴)'이다. 이 행사는 평화공원 전시장과 야외공간, 캠프타운 가니, 히메유리를 등에서 걸쳐 아두은 역사를 예술적 소통으로 승화하고, 오늘날까지 지속하고 있는 전쟁지지의 현

마부니언덕에서 오후라만으로

실을 성찰하는 평화예술 프로젝트이다. 필자의 관심은 MPP에 그치지 않는다. 이어지는 현장예술 '오후라피스 아트프로젝트(OPAP)'가 있기 때문이다. '오후라'는 오키나와 동북부에 있는 만(灣)의 이름이다. 이곳에 있는 헤노코 곳에 대규모 해군기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민들이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다. 70% 이상의 오키나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오키나와 현지자도 안티 아베의 입장에 서 있으며, 오키나와현 주민투표에서도 건설 반대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은 집행을 서두르고 있고,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시위를 벌이며 건설현장 앞에 진을 치고 있다. 필자의 발걸음은 마부니언덕에서 오후라만으로 이어졌다. 눈부신 산호빛의 오키나와 바다는 누부시게 아름답다. 해변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투쟁현장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투쟁

에 나선 주민들의 면면은 한국과는 사뭇 달라보였다. 필자가 방문한 날에는 주민들과 활동가, 정치인, 토목전문가, 음악인, 연극인 등이 참가해서 발언과 공연을 이어가는 대피크닉이 열렸다. 해상의 보트시위와 해변의 음식축제와 함께 열렸다. 투쟁과 낭만이 공존하는 시공간이었다. 아름다운 풍경과 대조를 분노 표출 아래 비극적 서정이 보여서 더욱 역설적인 슬픔의 아름다움이 드러났다. 헤노코지키 문제는 일본 섬의 남의 일이 아니라 한반도의 현실과 맞닿은 우리의 일이다. 일본국 오키나와현 헤노코만의 일은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 대추리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의 일들과 구조적으로나 현상적으로 동일하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하여 태평양 서북쪽 동아시아에 기지를 길게 걸쳐 놓고 있는 한 이와 같은 폭력과 갈등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와 제주도, 오키나와와 타이완, 필리핀에 이르는 '불의 고리'는 마치 오후라만 해변에 떠있는 부표의 사슬처럼 길게 늘어서 있다. 우리는 이미 보았다. 대추리와 강정마을에서 마을과 생태식사를 파괴하고 주민들을 내쫓고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현장을.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곳의 삶과 풍경에 대한 기억이다. 그 기억은 언제나 지금의 현실을 되돌릴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동반한다. 마을은 사라져도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의 활동이다. 그 가운데서도 예술활동은 감성적 공간을 바탕으로 오래도록 남아 인류사적인 문화유산을 이룬다. 대추리와 강정의 현장예술이 그랬듯이 마부니언덕에서 오후라만으로 이어지는 현장예술도 이런 현실을 성찰하고 그것을 미래로 투척하는 기억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사설

행정시장 직선, 주민투표 없이 추진해야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따른 주민투표에 난색을 표했던 제주도의회 김 위원은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화신은 무조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앙부처에 주민투표 없는 직선제를 요구한다면 의회도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도의회가 최근 주민투표 없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할 경우 적극 조력하겠다는 입장을 집행부에 전달해 주길 바란다. 도의회는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주 제주도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은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명확히 하지는 않았지만 현행 주민투표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때문에 도의회가 주민투표 없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김경학 도의회 운영위원장도 "지난 2월 도민 다수가 원하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의결 처리한 것으로 역할은 다했다"면서 43명 의원의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은 "행정체제 개편 때 도정이 모든 역량을 쏟았는데도 투표율이 36.7%에 불과했다"며 "개합도 못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건 직선제를 하지 말자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화신은 무조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앙부처에 주민투표 없는 직선제를 요구한다면 의회도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도의회가 최근 주민투표 없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할 경우 적극 조력하겠다는 입장을 집행부에 전달해 주길 바란다. 도의회는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주 제주도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은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명확히 하지는 않았지만 현행 주민투표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때문에 도의회가 주민투표 없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김경학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2월 도민 다수가 원하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의결 처리한 것으로 역할은 다했다"면서 43명 의원의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은 "행정체제 개편 때 도정이 모든 역량을 쏟았는데도 투표율이 36.7%에 불과했다"며 "개합도 못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건 직선제를 하지 말자는

열린마당

빠르고 간편하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하세요



이명영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대륜동 주민센터는 위치가 좋고 교통이 편리해 관내 주민뿐만 아니라 타지역 주민이나 관광객들의 방문도 많은 편이다. 덕분에 주민센터 민원실은 다양한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번호표를 뽑고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는 일이 많다. 설 틈 없이 민원을 처리하는 중에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빨리 일을 처리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이 조금해지곤 하는데, 특히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간단한 제증명만 발급받고 가시는 분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다. 전입신고나 인감증명 발급같이 창구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민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며 심지어 수수료도 감면되는 증명서들도 많이 저렴해지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간혹 어르신들의 경우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낯설거나 조작이 어려울 것 같아 이용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지문확인만으로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두 번만 이용해보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륜동에서는 직원들의 친절안내도우미 활동을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도와드리고 있어, 최근에는 사용방법을 익혀 빠르고 편리하게 제증명을 발급 하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 대륜동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 가족관계, 국세, 교육, 보건복지, 건강보험관련 등 85종의 증명서(법원등기부등본 제외)가 발급 가능하며 주민센터 업무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야간 및 공휴일에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이용시간을 24시간 365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합동단속 후 에어비엔비 정보 삭제도 요청”

“제주, 지역화폐 활용 최적지”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이 지역화폐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곳이 제주라고 제안. 신 위원장은 정의당제주도당이 3일 도민의 방에서 개최한 '지역화폐 도입 토론회'에서 "70만 인구 중 자영업자가 30만에 육박한다는 것은 정책 대상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라며 "70만 도민이 지역화폐에 열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또 "국정과 도시사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기업정책팀장이 확신을 갖느냐에 따라 엄청난 역의 유입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힘주어 표상준기자

등을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 신고건수는 1만6397건이며, 2018년 건수는 2016년 대비 1.7배 증가. 제주시는 관계자는 "분석결과를 검토하고 현장단속과 홍보를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계도·단속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한. 김현석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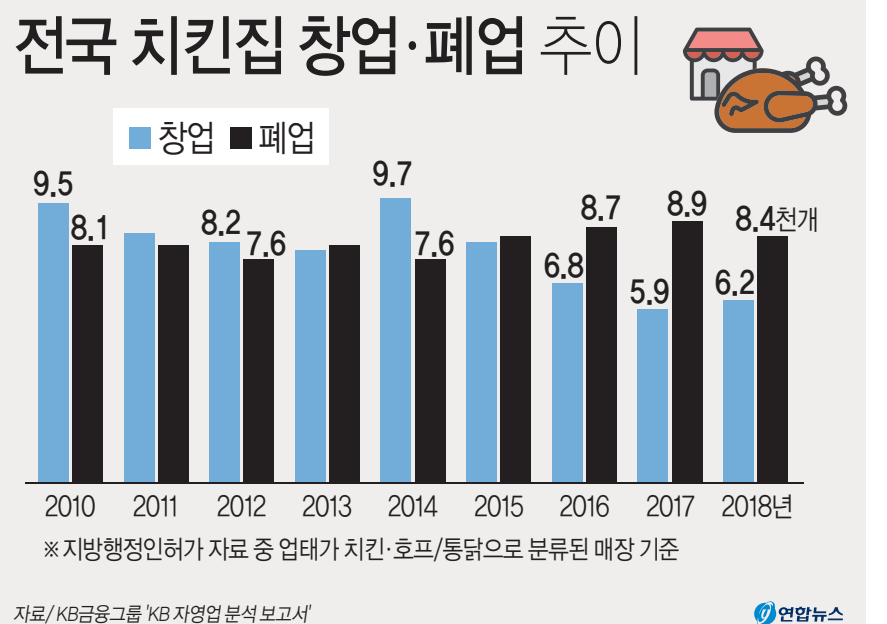
장애인구역 위반 데이터 분석

○...제주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민원불편 최소화 및 단속 효율화 방안 도출을 위해 장애인 불법주차구역 위반 데이터를 분석.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지역 내 신고된 위반 데이터(2016~2018년)

끊이지 않는 불법숙박

○...서귀포시가 올들어 숙박업이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펜션·민박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고발한 건수만 42건으로 집계. 숙박업 공급 과잉으로 출혈경쟁이 벌어지며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폐업하는 한쪽에선 불법 숙박업이 적잖이 이뤄지며 불법이 합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시 관계자는 "불법이 의심되는 곳을 중심으로 숙박업소점검TF에서 자체 점검과 자치경찰과 주1회 합동단속을 벌이고, 불법이 확인된 곳은 에어비엔비에 정보 삭제도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 문미숙기자

그래픽 뉴스



부고
강승우(대승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어머니 평산신씨 임순(향년 80세)께서 서기 2019년 6월 2일 14시 3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19년 6월 4일(화)
▶ 발인일시: 2019년 6월 5일(수) 오전 7시 30분
▶ 발인장소: 하귀농협장례식장 201분향실
▶ 장 차: 양지공원→극락사
남편 강위조, 아들 강승우, 며느리 전옥영, 딸 강선아, 사위 김옥분, 손자 강우준, 손녀 부윤신, 손녀 고석빈, 손녀 고석임, 손녀 나현우, 외손자 민식, 외손자 민수, 외손자 고창수, 외손자 창우, 친족대표 강영호
※ 연락처: 강승우 010-6886-9829, 강승림 010-3699-3718, 강승우 010-3894-1297, 강선아 010-4699-3657, 고석빈 010-4919-3657, 강영호 010-4691-1170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품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대학병원 임상결과 및 50년취 식품안전성 입증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 진흥원 판매장 등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백도라지연구소

계분 판매합니다. (배달 가능)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받은 자연건조한 계분(산란계)판매
전 화: 064-796-6947, 핸드폰: 010-3699-3344
신일농장, 제주팜 (주소: 제주도 한림읍 명사로106-7)

해외농업(개발) (영농조합인, 10명모집)
지역: 베트남(다낭, 팡남)
사업명: 한라봉, 레드향, 고품질(만감류)
동남아시아수출 (96만평)
기상, 토양, 최적지(고소득 창출)
상담의 010-9292-6933, 농개등 황금농원 010-2699-5572

당사에서 제조하는 펌백 피톤치드 추출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미국 FDA허가품 심사기준 합격 판정 되었음
펌백피톤치드 추출수는 인체에 무독성이며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집먼지진드기·곰팡이·황색포도상구균 등에 탁월한 살균·살충·항균·항중 작용은 물론, 악취제거·세정 중후군·스트레스 완화 시켜줌
제주편백우드(영) T. 064-725-0622
주소지 보배길 32-16(제주대학교병원 남쪽) 벤처기업·벤처피톤치드 추출 전문기업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주소: 제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사무실 임대
위치 한라일보사 1층 (제주시 서사로 154)
전용면적 175㎡(분할가능)
용도 의원, 사무실, 학원 등 전업종 가능
주차장 완비
문의 064-750-2530